

‘로코퀸’과 ‘순정남’ 따뜻한 사람 이야기

KBS 2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오늘 첫 방송

공효진·강하늘 주연 넷플릭스로도 서비스

특유의 사랑스럽고도 톡톡 튀는 연기로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불리는 배우 공효진(39)이 새 로맨스극을 들고 안방극장을 찾는다.

18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은 천진함과 강단으로 꽃꽂이 세계를 버티어 나가는 ‘동백’을 주인공으로 하는 휴먼 로맨스 드라마다. ‘쌈, 마이웨이’(2017)를 히트시킨 임상춘 작가가 대본 집필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파스타(2010)’부터 ‘괜찮아, 사랑이야(2014)’, ‘프로듀사(2015)’, ‘질투의 화신(2016)’ 등 매번 안방극장에서 ‘흥린’을 쳐 왔던 공효진이 TV 드라마로 돌아오는 건 조성석(39)과 함께한 로맨틱 코미디극 ‘질투의 화신’ 이후 3년 만이다.

그는 그동안 ‘로코퀸’, ‘공블리(공효진+라블리)’ 같은 수식어는 잠시 내려둔 채 스틸러 영화 ‘미생’(2016), ‘도어락’(2018) 등에 출연했고, 올해 초 ‘뽕방’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경찰로 분했다.

공효진은 17일 구로구 신도림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동백꽃 필 무렵’ 제작발표회에서 “동백이가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에 (크게 다르지 않아) 연장선에 있는 인물이라고 고민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전작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지금까지 출연한 드라마 중 가장 만족했던 드라마가 ‘고맙습니다’(2007)였다. 이 드라마를 하면서 연명대

와 상관없이 위로를 받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 제 마음도 따뜻해졌다. 이번 작품에서도 사람 얘기를 통해 그런 만족감을 또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에선 경험해보지 않은 캐릭터에 도전하고 드라마에선 다시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젠 그게 제 취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변화하기 위해 장면마다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전역한 강하늘(29)은 “사실 지금도 어색하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옷을 입으면서 이게 내 옷인가 싶었다”고 농담을 하며 전역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복귀작으로 ‘동백꽃 필 무렵’을 선택한 데 대해 “1~4부까지 대본을 봤는데 흔하게 볼 수 없던 대본이었다. 추운 날 감독님과 작가님을 뵙고 나선 이 대본을 무겁게 읽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다”면서 “효진 누나의 팬이기 때문에 팬심으로 선택한 것도 있다”며 웃었다.

연출을 맡은 차영훈 PD는 “우리끼리 ‘동백꽃 필 무렵’을 4-4-2 전술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 ‘4’ 만큼의 밀로, ‘4’ 만큼의 휴먼, ‘2’ 만큼의 스틸러가 있다”며 “종합선물세트 같은 드라마”라고 설명했다.

‘동백꽃 필 무렵’은 18일 밤 10시 KBS 2TV에서 방송을 시작하며 넷플릭스에도 있는 인물이라고 고민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전작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지금까지 출연한 드라마 중 가장 만족했던 드라마가 ‘고맙습니다’(2007)였다. 이 드라마를 하면서 연명대



배우 강하늘(왼쪽)과 공효진이 17일 오후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KBS2TV 새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트릭스’ 20년 만에 4DX로 재개봉

25일 전국 CGV에서

영화 ‘매트릭스’가 개봉 20주년을 맞아 이달 25일 전국 CGV에서 4DX 버전으로 재개봉한다고 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코리아가 17일 밝혔다.

1999년 선보여 영화계 파란을 일으킨 ‘매트릭스’는 미래세계, 인간의 뇌를 지배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가상현실 공간인 매트릭스에서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에 대항하는 인간 간 대결을 그린 SF 액션 블록버스터다. 릴리 위소스키, 라나 워쇼스키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주인공 네오 역을 맡은 키아누 리브스 대표작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제작이 확정된 ‘매트릭스 4’의 네오 역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매트릭스’는 인간의 삶이 기계가 만든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철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만화적 상상력과 동양적 액션을 가미해 전례 없던 스토리와 비주얼을 구현했다.

특히 실사영화 최초로 ‘볼릿 타임’(bullet time)이라는 슈퍼 슬로우모션 기법을 사용했다. 이 기법으로 촬영한, 날아오



영화 ‘매트릭스’

는 총알을 피하는 장면은 지금도 명장면으로 꼽힌다. 200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 음향, 음향효과 편집, 시각효과 4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모두 수상했다. /연합뉴스

‘수미네 반찬’ 할배특집...김용건·임현식·전인권 출동



tvN은 18일부터 4주간 ‘할배 특집’을 선보인다고 17일 예고했다. 특집에는 배우 김용건, 임현식, 가수 전인권이 출연한다.

그동안 제대로 음식을 배워본 적이 없어 오로지 ‘혼밥’(혼자 먹는 밥)으로 끼니를 때운 3인방은 김수미의 지도 아래 새로운

요리의 세계로 입문한다. 김수미는 “4주간 집에서 할 수 있는 반찬을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매주 우등생도 발표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10분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생일편지(재)		00 애니갤러리 30 자두와 친구들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킴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남북의 창 50 전국노래자랑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에어로빅 50 뽀샤 매카드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네오세모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쏠!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Q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자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승터	00 동백꽃 필 무렵	0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00 시크릿 부티크
11	00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KBS 스페셜 5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썸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45 KBS 뉴스 55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TV는 사랑을 싣고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눔엔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EBS 초대석	17:30 페파 피그(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톡톡! 보너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명 유치원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출동! 슈퍼윙스	15:10 로보카 폴리(재)	〈숨겨진 세계 라플란드 -북으로 가는 길 Norway〉
09:30 원더볼츠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5:55 출동! 슈퍼윙스(재)	〈트롯 기행 3부 그리운 나의 고향역〉
10:00 지식의 기쁨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6:25 마사와 곰(재)	22:45 극한직업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3:35 EBS 초대석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00 EBS 뉴스	24:25 지식의 기쁨(재)
12:00 EBS 정오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8일(음 8월 20일 戊午)

<p>子</p> <p>36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하겠다. 48년생 기대도 컸던 만큼 끝나고 나면 많은 미련을 남기게 될 것이다. 60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위상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72년생 숙원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84년생 혼란스럽겠다. 96년생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자. 행운의 숫자 : 64, 50</p>	<p>午</p> <p>30년생 바로 그것이다. 42년생 무모함은 피해를 부르기기도 한다. 54년생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66년생 평소 쌓은 공이 비상시에는 약이 될 것이다. 78년생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90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이미지를 좌우하겠다. 행운의 숫자 : 23, 74</p>
<p>丑</p> <p>37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49년생 공들여 왔던 바가 다방면으로 진척을 보인다. 61년생 미심장한 날이 되리라. 73년생 음양의 기운이 교체하는 시기이니 신중을 거듭하라. 85년생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라. 97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11</p>	<p>未</p> <p>31년생 균형을 메운다면 오히려 튼튼해질 것이다. 43년생 절제대로만 진행한다면 순조롭다. 55년생 아주 자연스러운 테크닉이 필요하다. 67년생 지켜보고 있으면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79년생 절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9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니 전후좌우를 잘 살피자. 행운의 숫자 : 87, 52</p>
<p>寅</p> <p>38년생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노력에 정비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50년생 대인 접촉은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62년생 한정하지 않는다면 통제하기 힘든 형세이니라. 74년생 궁극적인 목표점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86년생 효과가 커진다. 98년생 정성과 숨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행운의 숫자 : 28, 33</p>	<p>申</p> <p>32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 44년생 확실한 조정이 보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56년생 중국적으로는 상호 이해관계에 불착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80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 92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 01</p>
<p>卯</p> <p>39년생 원칙적인 적용보다 합리적인 융통성이 더 필요한 때이다. 51년생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63년생 대체적인 흐름은 양호하나 작은 결림들도 보인다. 75년생 현행대로 실행하는 것이 유익하다. 8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니라. 99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행운의 숫자 : 84, 39</p>	<p>酉</p> <p>33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45년생 부질없는 일에 매달린다면 엄청난 낭비로다. 57년생 소망하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면 이루어지겠다. 69년생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안배를 해야겠다. 81년생 최고의 대안은 경험과 존중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93년생 확실한 어필이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90, 89</p>
<p>辰</p> <p>40년생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게 된다. 52년생 소문나지 않게 처리해야 백 번 나올 것이다. 64년생 모순을 인식했다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길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88년생 당연한 값은 이 있겠다. 00년생 전체적인 대안이 되어 줄만한 확실한 해결책이 생길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15, 77</p>	<p>戌</p> <p>34년생 백 마디의 말보다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낫다. 46년생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개시할 때이다. 58년생 발상 가능성이 능후하다. 70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82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94년생 막연하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 구체적인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3, 69</p>
<p>巳</p> <p>41년생 현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일이다. 53년생 향우의 판세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배려하다보면 얻는 바가 많다. 77년생 한 번 시작하면 술술 풀려 나게 될 것이니라. 89년생 지나치게 쉬운 진귀함이 보인다. 01년생 변화의 폭이 크다. 행운의 숫자 : 13, 19</p>	<p>亥</p> <p>35년생 뭇 바에 지출해야 할 곳이 생긴다. 47년생 공들여 왔던 것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 59년생 거의 똑같은 국량이 반복되면서 다소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운세이다. 71년생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83년생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 할 때다. 95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길게 되는 날이니라. 행운의 숫자 : 38, 94</p>